

5

MAY 2010

보내

No.233
ChuncheonNews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브라운아이드걸스 (국내 최정상 4인조 여성음악그룹)



표지이야기

국내 인기여성그룹인 ‘브라운아이드걸스’가 지난 5월18일 2010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홍보대사가 되기 위해 레저대회 개최 D-102일을 맞아 춘천을 찾았다.

이들은 브라운5번가 프리미어스영화관에서 핸드프린팅과 사인회를 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CONTENTS

포커스	04	가족과 이웃이 있어 행복한 5월
춘천은 지금	06	우리집 주소가 바뀌었다구요?
우리동네 이기업	08	후평공단 내 하나식품
봄내그림	10	사람이 만든 새로운 자연, 의암호
살립시다! 지역경제	12	강원대 후문 웨딩거리
레저 & 스포츠	14	시민레저체험행사 / 인라인트랙경기장
춘천 분지 이어돌기 산행	16	마적산 → 경운산 → 배후령 정상
춘천의 어제와 오늘	18	전후 60년 춘천의 어제와 오늘
문화사랑방	22	2010춘천청소년문화존
	24	2010춘천마임축제 공연일정
추억한토막	25	미스 개나리 카퍼레이드
시민의 눈	26	유진규 예술감독이 바라 본 축제극장 ‘몸짓’
춘천사람 이야기꽃	28	미술전시 공간된 교동주민센터
우리동네소식통	32	
의회소식	33	
알림마당	36	



춘천시보 2010년 5월 233호

발행인 유성춘 | 기획 및 디자인 춘천시청 공보담당관실(250-3229, 250-4169)

창간일 1993년 1월 25일 | 발행일 2010년 5월25일

춘천시보 봄내는 <http://www.chuncheon.go.kr> 에서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Photo Essay

5월의 꽃처럼 아이들의 오색 웃음이 터졌다.

붉고 푸른 풍선에는 아이들의 꿈이 가득 차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싶다.

춘천의 희망이며 미래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푸른 하늘을 향한 손짓이 힘차다.

— 서면 금산초교 —



가족 이웃 ...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①

① 2010춘천마임축제 사전 홍보를 위해 5월8일 브라운5번가에서 팀 퍼니스트가 익살스런 공연을 펼치며 시민들을 흥분시켰다.

② 공지천분수대가 여름을 만났다. 5월인데도 초여름 날씨를 보이자 어린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분수대에 뛰어들어 시원한 물보라를 만끽하고 있다.

③ 어린이날 서면 애니메이션박물관 광장에서 열린 아스팔트 그림그리기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④ 2010춘천월드레저조직위원회가 마련한 '찾아가는 레저' 행사가 퇴계동 신축 여성회관에서 열려 시민들이 댄스스포츠를 배우고 있다.

⑤ 매월 둘째 네째 토요일마다 숲속을 음악으로 수놓았던 구곡폭포 토요 숲속 음악회가 5월8일 어버이날을 끝으로 봄 공연을 마무리했다.

⑥ 어버이날을 맞아 여러 사회복지단체들이 노인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가졌다.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한복으로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이 공연도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 안겨 재롱을 떨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②

가정의 달 5월은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했다.
어린이들의 청아한 얼굴과 어버이들의 넉넉한 웃음 위로 내려앉는 햇살은 눈부셨다.
5월23일 2010춘천마임축제가 개막되기 전부터 사전 홍보 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을 즐겁게 했다.
춘천의 행복한 초여름 한 때를 카메라에 담았다.





춘천은 지금 |

우리집 주소가 바뀌었다구요?

도로와 건물에 따라 새주소 부여, 전국적으로 주소체계 통일

요즘 집 주소와 도로명이 바뀌었다. 2012년 1월부터는 완전히 바뀐 주소를 써야 한다. 불과 몇년전에도 바꾼 것 같은데 왜 또 바꾸는지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 무엇이 바뀌는 걸까? 쉽게 알아보자.

● 주소와 도로명 왜 바꿀까?

새주소사업이란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해 가고자 하는 곳을 보다 찾기 쉽게 하기 위해 주소를 바꾸는 사업이다. 새주소로 바꾸면 화재나 사고 등에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간 시군별로 제각각 도로명과 주소를 수시로 고쳐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시군의 주소체계가 모두 통일되도록 2007년 도로명주소법을 만들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주소와 도로명을 바꾸고 있다.

● 지역 특징을 살린 도로명으로

동네마다 붙어있는 도로명이 바뀌었다.

새싹 등 추상적인 이름, 한전 등 기관명, 다람쥐 등 동·식물 이름은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준다해 수풍골길, 동학길 등 지역의 역사와 특징을 담은 도로명으로 바뀌었다.

● 주소는 건물번호로, 지번은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던 ‘후평동 95-16번지’와 같은 주소는 일본식으로 땅에다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즉 지번(地番)이지 건물주소가 아니었다.

앞으로는 주소가 건물순서로 매겨진다. 즉 길(도로명)을 기준으로 몇 번째 건물인가로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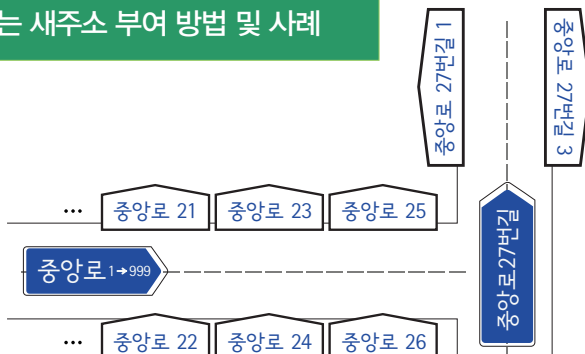
그러나 지번은 그대로 남는다. 토지관리를 위해 지번은 계속 사용하며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때는 지번을 쓴다.

● 2012년부터 새주소만 사용

우편물을 보낼 때나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는 모두 새주소로 바뀌며 그외에 금융기관 등 민간 부문의 주소도 2011년 말까지 새주소로 변경된다. 바뀐 집 주소는 집집마다 12월까지 개별적으로 방문 고지하거나 우편물을 보내 알려준다. 새주소는 올 7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부터는 완전히 새주소로만 사용해야 한다.

문의 : 250-3740

바뀌는 새주소 부여 방법 및 사례



- 옥천동 39-6
→ 중양로 27번길 11(옥천동)
- 후평동 95-16번지
→ 수풍골길 13번지 11(후평동)
- 석사동 00아파트 00동00호
→ 동학길 00동 00호(석사동, 00아파트)
- 남산면 방하리 434번지
→ 방하로 325(남산면)

행정소식

풍물시장 신축공사 일정



경춘복선전철 하부공간에서 풍물시장 신축공사가 시작됐다. 춘천시는 지난 4월29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부지 사용 협약을 맺고 지난 5월10일부터 풍물시장을 짓기 시작했다.

풍물시장은 복선전철 아래 온의사거리~호반교 700m 구간과 호반순환도로 인접 사유지를 포함해 2만1,000여㎡에 조성된다. 이곳에는 143개 상가와 주차장, 휴게공간이 들어서며 8월중 준공된다.

상가변영회는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상가 이전과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는대로 개장 행사를 열 예정이다.

한편 약사천 복원 공사는 풍물시장 상인들의 점포 이전 이후인 9월 중순께부터 시작돼 내년말 준공된다.

문의 : 250-3016

기업도시 부지 개발제한 완화

기업도시 조성사업 예정지인 남산면 광관리, 동산면 군자리 일대 2,932필지 816만여㎡에 대한 개발행위제한이 완화된다.

춘천시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국내외 경제난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 대상을 완화, 해당 지역주민들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2007년12월14일 이전부터 제한 지역 내에 거주하고 토지를 소유한 농업인으로 ▲주택의 증축, 개축 및 이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영농을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 축사 신축, 증축, 개축, 농업용 창고 신축, 증축, 개축 및 이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이 허용된다. 또 농업인 주택 증·개축, 영농건축물 신·증·개축을 위한 공작물 설치도 가능하다.

문의 : 250-4700

e하나로민원 이용하세요

e하나로 민원이란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터넷 전산망으로 확인한 후 민원처리를 해주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비서류 준비를 위한 교통비와 발급비, 시간이 절감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절차는 ▷ 민원신청 처리기관 및 구비서류 확인(<http://pr.share.go.kr>, <http://www.egov.go.kr>) ▷ 직접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발급 후 민원처리기관 방문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등 자주 사용되는 71종)를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신청인 본인 사전 동의 필요)하고 민원처리를 해준다.

문의 : 250-3463

꽃매미 방제, 지금이라도 해야

중국에서 날아온 꽃매미가 점차 북상하면서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유충 때는 툭툭 튀고 성충 때는 날아다니는 꽃매미는 때를 지어 다니며 식물의 당분을 빨아먹어 식물을 말라죽게 한다.

이에 따라 농가와 소규모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는 부화시기에 적극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부화시기인 5월말께 방제를 하지 않은 이들은 6월 10~15일께 방제를 해야 한다.

꽃매미는 나무에 기어오르는 습성이 있어 나무 밑둥 50~100cm 위치에 끈끈이 트랩을 설치해 잡거나 총채벌레, 애매미충류와 동시 방제를 하면 약 치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

※ 적용약제 : 폭소리, 메프치온, 빅카드, 스톤네드, 아리아미다, 아타라, 코니도, 코사인 등 문의 : 250-3374



꽃매미는 흰 반점에 검정날개 → 빨간 날개가 되었다가 다 자라면 갈색 날개가 된다.

후평공단의 28년 터줏대감 ‘하나식품’

‘해썹’ 인증받고 ‘맛 좋고 깨끗한’ 어묵 생산

해썹 (HACCP)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정하는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나쁜 물질이 식품에 들어가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위생관리시스템.



품질관리를 위해 위생복으로 중무장한 하나식품 직원들

하나식품은 28년째 후평동에 터를 잡고 어묵을 생산해 온 향토기업이다.

춘천에서는 대형마트나 수퍼마켓에서 흔히 이 회사의 어묵을 접할 수 있다.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좋다고 소문나 주부들의 손길이 자주 간다. 전체 판매량의 약 40%가 춘천에서 팔린다니 그 인기가 실감난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해썹(HACCP ·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됐다. ‘해썹’ 인증을 받으면 식품을 제조 · 가공해 유통하기까지 정부가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 철저히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 즉 ‘해썹’이란 그만큼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공인 인증인 셈이다. 위생관리가 철저한 회사답게 하나식품의 공장안은 모두 청결구역, 준 청결구역, 일반구역으로 나뉘어있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마다 철저한 소독을 거쳐야 한다.

이 회사의 연간 매출액은 약 17억 원. 군부대와 서울 대리점, 학교 급식재료로 납품하고 일반 대형마트나 농협마트 등에서도 꾸준히 팔려나가고 있다.

신제품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03년엔 부드러우면서도 식감이 좋은 콩두부 어묵을 국내 최초로 개발, 특허를 내 어묵시장 평정을 노리고 있다. 편의점 등에서 즉석으로 물을 부어 먹을 수 있는 콩두부 컵 어묵도 개발을 끝내 하반기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오성례(51) 사장은 “춘천 후평공단의 터줏대감인 만큼 춘천시민이 가장 사랑하는 어묵을 만들겠다”며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시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라고 했다.

문의 : 252-2966

한영숙 명예시민기자



대한노인회 알뜰살뜰 나눔의 가게

좋은 물건이 가득, 사랑은 덤!

춘천시내 노인들이 좋은 물건과 마음을 나누는 가게를 열었다.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가 ‘알뜰살뜰 나눔의 가게’를 연 것.

이 가게는 춘천시민복지회관(중앙로) 2층 대한노인회 사무실 옆 복도와 빈 사무공간에 차려졌다.

이곳에는 모두 1,500여점의 의류와 생활용품이 진열돼있다. 여성·남성·아동·중장년층 의류 등 구색도 제대로 갖췄다. 중고지만 멋스러운 옷들이 1,000~5,000원의 가격에 판매된다.

이 물품들은 모두 춘천시내 320여개 경로당의 노인들이 집에서 안입는 옷과 안쓰는 물건을 들고 나온 것들.

수집을 시작한 지 3개월여만에 모두 3,000여점의 물품이 모아졌고 그중 상태좋은 것들만 골라 진열했다.

청바지나 모자, 화분, 안마의자 등 새 제품도 저렴하게 만날 수 있다. 신동면 정족리 노인들이 손수 만든 바구니와 천연비누 등 이웃들의 정성이 담긴 수제 생활용품도 다양하다. 이 제품들은 지역의 기업이나 지인들로부터 협찬과 기증을 받았다. 시민들의 마음이 한 점 한 점 모인 셈이다.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노인돕기기금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노인회에 모아둔 돈이 없어 다양한 사업을 벌이지 못했던 게 사실. 이 때문에 노인회는 기금을 조성해 아주 궁핍한 노인이나 경로당을 직접 도와주고 새로운 노인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임종태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 사무국장은 “안쓰는 물건이 있다고 전화만 주면 노인회에서 바로 수거하니 시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점 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10~오후 2시 사이.

문의 : 250-3693



농촌소식

포도 재배 도와드립니다

춘천지역 포도농가들이 최근 춘천친환경 희망포도연구회를 만들고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춘천에서는 30여 포도농가가 약 6ha 면적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있다.

이중 세 농가가 유기농법과 무농약으로 친환경 포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적 포도재배법을 함께 연구하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포도재배법을 가르쳐줄 계획이며 포도재배에 관심있는 이들의 회원 가입도 환영한다고.

유기농법이나 포도원 경영상담도 해주며 포도원 체험도 가능하다.

유기농 포도를 생산하는 김기천(신북읍 지내리)씨는 “물과 공기가 좋은 곳에서 생산되는 춘천 포도를 많이 사랑해달라”고 청했다.

문의 : 250-3374

고탄 우렁이 쌀 싸게 팝니다

사북면 고탄리 농민들이 친환경 쌀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고탄 농민 15 농가는 지난해 처음 우렁이 농법으로 친환경쌀 재배를 시작했다.

이 쌀은 맑고 깨끗한 용화산 계곡물로 농사를 짓는데다 잡풀을 먹여치운 우렁이들이 땅 속으로 파고들며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쌀알이 실하게 맺히고 밥맛이 좋다고.

고탄 농민들은 처음으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한 탓에 시민들에게 쌀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현미와 백미 모두 20kg에 5만2,000원. 주문 후 3일 이내에 도정해 배송하기 때문에 신선한 쌀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이상진 이장
011-9969-9561

사람이 만든 새로운 자연, 의암호

글 | 노화남

중도, 안개 속 한 폭의 수묵화

의암호는 거대한 수반(水盤)이다. 40여년 전 북한강과 소양강 두 줄기 강물을 막아 댐을 쌓았고 그 댐에 갇힌 물이 춘천의 옆구리를 훑으며 찰싹이는 호수로 만들었다.

너비 4km, 길이 8km나 되는 호수가 생겨나면서 춘천은 호반도시라는 꽤 낭만적인 이름을 얻었다. 밤사이 소리없이 진군한 점령군처럼 춘천을 몽롱하게 적셔버리는 짙은 안개도 호수와 함께 춘천의 명물이 되었다.

의암호에 떠있는 세 개의 섬이 이 거대한 호수를 아름다운 수반으로 만들었다. 인공으로 생겨난 호수지만 수반은 자연미를 연출한다. 물 한가운데 편안하게 누워있는 섬들은 도시를 걷는길하며 판청을 부린다.

숲과 풀밭, 모래톱과 갈대숲을 거느리고 새와 곤충과 벌레를 키워내면서 전혀 다른 세상을 스스로 가꾼다. 물에 잠긴 하늘, 산 그림자, 구름과 달과 별과 바람, 물비린내 속에서 팔딱거리며 튀어오르는 물고기들. 그래서 거대한 수반 의암호엔 생명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생성된다.

지금은 고슴도치섬으로 불리는 위도(蝟島), 해발 백미터가 채 안되는 고산(孤山), 그리고 호수 한 복판에 평평하게 떠있는 중도(中島)가 아름다운 수반 의암호를 장식하는 주인들이다.

그중에 중도는 단연 으뜸가는 자연미를 지니고 있다. 62만 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넓이에 가운데 잘룩한 허리로 물이 들어차 상중도와 하중도로 나뉜다.

질펀한 벌판, 풀밭에 쏟아져 내리는 눈부신 햇살,

하늘높이 팔 벌리고 제각기 발돋움한 미류나무 숲, 날갯죽지 예쁜 새들의 비상, 서양의 시인 예이츠가 노래한 이니스프리 섬도 이만 못하리란 생각이 들만큼 의암호의 중도는 아름답다. 섬 안에서 보면 막힌 데 없이 광활하고 물 밖에 나와 호숫가에서 건너다보면 아득하고 그윽해 물끼 뱀 수목화 한 폭을 대하는 느낌이다, 물에 젖은 섬, 안개 속에 잠든 고즈넉한 섬이다.

중도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꿈과 낭만, 편안한 휴식과 달콤한 행복을 함께 안겨주는 복합공간이다. 휴일의 중도는 한꺼번에 밀려든 사람들로 온통 시끌벅적하고 요란스럽지만 그 속에서 사람 사는 모습과 소리가 다양하게 어울려 생동감을 맛볼 수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늦가을엔 새소리 벌레소리 바람소리 물결소리만 들리는 섬 안에서 문득 혼자가 된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며 성찰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도 있다. 의암호 한가운데 떠있는 섬 중도는 계절마다 독특한 아름다움을 혼자서 만들어내는 마력을 지녔다.



상공에서 바라 본 중도의 전경



의암호 수변에 자리잡은 어린이회관과 춘천MBC, 안보회관

의암호 수변 공간은 어디나 아름답다

삼악산 기슭 덕두원 쪽에서 의암호를 건너다보면 두보(杜甫)의 시귀가 저절로 떠오른다. ‘강물이 파라니 새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니 꽃이 불붙는 것 같다(江碧鳥逾白 山青花欲然)’. 두보가 왜 물빛을 벽(碧)이란 글자로 표현했는지 삼악산 거꾸로 박힌 의암호를 보면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의암호 수변공간의 백미는 역시 삼천동 어린이회관과 문화방송 건물이 자리 잡아 앉은 언덕이다. 중도가 호수 한 가운데서 널찍하게 펼쳐져 수반의 안정감과 무게를 더해준다면 어린이회관은 수반 가장 자리의 아기자기한 경관을 살려주는 포인트다.

아트막한 산허리를 밀어내고 앉은 어린이회관은 뒤편에 잡목 숲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앞으로는 거울 같은 호수를 발치에 깔고 있다. 곱게 다듬은 잔디밭 여기저기에 앙바름한 향나무 회양목이 다소곳이 자리잡고 띄엄띄엄 우람한 벚나무 느티나무 소나무가 버티고 서있다.

암갈색 벽돌로 쌓아올린 칙칙한 벽과 평퍼짐한 지붕, 땅에 딱 달라붙은 육중한 몸체가 어린이 회관이라기보다는 중세 서양의 성처럼 고색창연한 맛을 풍긴다. 그래도 이름난 건축가가 설계해 아름다운 건축물로 상까지 받았고 준공되자마자 춘천의 명소로 떠올랐

다. 한 때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줄을 이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춘천 시민과 외지 관광객들이 휴식과 산책 코스로 즐겨 찾는다.

책과 음악 차와 음식이 있는 카페 예부룩에서 유리창으로 내다보는 호수와 섬은 그대로 그림이다. 건물 앞 잔디밭에서 해마다 문화행사가 열리고 별관엔 미술작품 전시회가 자주 열리는 화랑 스페이스 공도 있어 회관 전체가 춘천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어린이회관 야외무대에서 좁은 오솔길을 따라가면 문화방송과 안보회관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춘천 시가지와 의암호 풍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 명당이다.

문화방송 정원에서는 해마다 가을이면 전국의 유명한 조각가들 작품 전시회가 열린다. 최근에 유명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감상하면서 향기로운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 알뮤트가 문을 열었다.

알뮤트에서 내다보는 호수와 섬, 그리고 호수 건너편 삼악산 봉우리가 일품이다. 특히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 호수 산 구름 그리고 새들의 날갯짓은 문득 별천지에 와있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필자약력 : 1943년생

김유정기념사업회 이사 · 소설가

방내

Wedding Street



살립시다 지역경제 | 강원대 후문 웨딩거리

인생 최고의 순간을 여기서~

평생 결혼만큼 설레는 일이 있을까? 그 일생일대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주는 곳이 강원대 후문에 모여 있다. 진분홍 패랭이꽃이 상크롭하게 피어있는 웨딩거리, 그곳에 진열된 웨딩드레스도 5월의 햇살을 눈부시게 받고 있다.

강원대 후문 웨딩거리는 강원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결혼과 관련된 여러가지 업종이 밀집돼 있는 곳도 이곳밖에 없다.

그 때문에 춘천, 철원, 홍천, 화천, 양구, 인제 등 인접지역은 물론 강원도 전역의 예비 부부들이 이곳을 찾아 결혼을 준비한다.

철원, 인제 등 도내 예비부부들 몰려

강원대 후문 농협사거리(축협사거리) 아래부터 팔호광장까지 이어지는 4차선 도로 양쪽으로는 웨딩전문점, 한복점, 패백·이바지 음식점, 스튜디오, 인테리어 소품점, 가구점, 여행사, 커튼점, 양복점 등 결혼과 관련한 30여개 점포가 줄지어 있다.

강원대 후문으로부터도 한참 떨어져 딱히 특징이 없던 이 거리에 90년대 후반에 대형 웨딩전문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2002년 이후 유

명 점포들이 이곳에 모여들면서 본격적으로 웨딩 관련 업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2005년을 전후해 온의동, 중앙시장, 서부시장 등에 있던 한복집이 옮겨오고 인테리어 용품점까지 자리를 잡자 규모가 커졌다.

다른 지역보다 서비스는 좋고 가격은 싸

예비부부들은 이곳에 있는 웨딩전문점에서 드레스, 턱시도, 웨딩앨범과 촬영, 신랑신부 메이크업, 부케 등 모든 결혼준비를 할 수 있다.

이곳의 웨딩전문점들은 밀집돼 있는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그만큼 서비스가 좋다고 소문난다.

송미옥 듀오웨딩 대표는 “대부분의 웨딩전문점들이 서울 강남 디자이너의 수백만원 짜리 최신 드레스를 한두벌 짚은 날 갖추고 있고 마사지 3회 등의 서비스도 해주지만 가격은 수도권



보다 싸다” 고 전했다.

이곳은 결혼 시즌인 3~6월, 9~10월이 가장 바쁘다. 올해는 윤달이 낀 지난해에 결혼을 미뤘던 예비부부들로 북적거리고 있다.

3~4년 전부터는 돌잔치나 졸업생, 연주회 등 행사 메이크업 고객도 늘었다. 친지 결혼식이나 잔치 때에 입을 한복을 대여하는 이들도 많다.

이처럼 고객층은 다양해졌지만 주차공간이 없다는 게 문제. 한복점을 운영하는 김복희 씨는 “이 거리는 행사준비를 위해 특별히 찾아오는 곳”이라며 “손님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 애를 먹는다” 고 하소연했다.

상인들은 주차공간만 해결된다면 웨딩거리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배정삼 결혼사 대표는 “지난해 대성로가 뚫리고 꽃길로 단장되면서 거리가 밝아졌다” 며 “웨딩 관련 업종도 점차 늘고 있어 기대가 크다” 고 했다.

웨딩전문점에서 알려주는

웨딩 팁!

- ▶ 웨딩전문점 3~4곳을 다니며 비교 상담할 것. 가격은 비슷하지만 드레스, 사진 등이 다르니 취향에 맞게 선택.
- ▶ 3~6월, 9~10월의 토·일요일 1시는 결혼 피크 시간대. 이 시간대에 결혼하려면 3개월 이상 앞서 준비할 것.
- ▶ 12~1월에는 한산한 대신 여행 경비가 다소 비싸짐.

중앙시장 상인대상 설문조사 |

중앙시장이 달라질까요?

82%가 문화관광시장 조성에 '희망'

중앙시장 상인들은 대부분 중앙시장에서 평균 22년 동안 장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이상 터줏대감은 전체 상인 180명 중 29명(16.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가 지난 4월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중앙시장 242개 점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상인 16%가 40년 이상 터줏대감

이 조사에서 중앙시장 242개 점포 중 폐업해 문을 닫은 점포는 15개이며 중복되거나 창고로 쓰이고 있는 점포를 제외하고 180개 점포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4.4%가 한 업종으로 오랫동안 장사

180개 점포의 상인 중 이곳에서 장사한 지 10년 미만된 점포는 21.1%(38개)에 불과했다. 또 장사를 하면서 한번도 업종변경을 하지 않은 점포는 84.4%(151개)로 대부분 중앙시장에서 한 업종으로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상인들은 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수시장을 견학하고 선진화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76.1%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앙시장이 중소기업청과 문화부가 함께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된 것과 관련 87.2%가 알고 있었으며 82.2%가 이 사업에 기대를 갖는다고 답했다.

선진화교육에 76.1% 참여의사

상인들은 재래시장을 찾지 않는 이유에 대해 대형마트 입점의 영향을 제외하고, 28.7%가 먹거리 부족, 24.6%가 다양하지 않은 품목, 16.9%가 낙후된 시설과 환경을 꼽았다.

춘천시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중앙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시민참여행사 ① |

아이들과 함께 신나는 레저체험



[편집자 註] 석달 앞으로 다가온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와 경기대회에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시민과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①와 레저 쇼②를 이번호와 다음호 2회에 나누어 소개한다.



이번 대회에는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다채롭다.

8월28일부터 9월5일까지 12개의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레저스포츠를 주제로 한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와 로봇미로찾기, 로봇댄스대회가 열린다. 주최 측에서 제공하는 로봇으로 가족들이 로봇배틀을 벌이는 경기, 로봇을 조정해 축구하기 게임 등 로봇체험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전국모형항공기 대회는 9월4일부터 5일까지 열려 모형항공기 마니아들을 설레게 할 듯 싶다.

줄넘기 축제도 열린다. 30초 스피드경기, 2단 뛰기, 10인 단체 줄넘기, 줄넘기 마라톤, 단체 음악줄넘기 등이 열리니 줄넘기 실력자는 미리 신청할 것.

레저대회 시민 체험프로그램

구분	체험일자	사전신청기간	체험장소
월드레저 글·그림대회	8.28~9.5	7.1~8.22	경기장 입구 상설무대 앞
꿈이 쑥쑥 로봇나라	로봇대회 8.28~29	7.1~8.13	전시회장 내 이벤트 무대
	로봇체험전 8.28~9.5	즉석참가	
레저줄넘기축제	8.29~30	7.1~8.10	
모형항공기대회	9.4~5	6.1~7.31	종합경기장, 보조구장
인라인롤러유소년대회	9.5	~7.31	인라인트랙 · 로드경기장
엄홍길 대장 산행축제	8.29	~8.15	하늘정원~향로산
레저 벼룩시장	9.3~9.5	판매신청~7.31 즉석 참가	경기장 입구 상설무대 앞
뉴 스포츠 체험한마당	8.28~9.5	즉석 참가	전시회장 앞
로프코스(암벽등반) 체험	8.28~9.5	즉석 참가	야구장 입구 잔디공원
시민자유공연 페스티벌	8.28~9.5	~7.31	경기장 입구 상설무대

※ 종목마다 참가비가 있을 수 있음

가족과 함께 타는 전국인라인롤러 유소년대회도 기대된다.

선수가 아닌 일반인으로 유치부, 초등부 대회와 가족부 계주대회가 열리니 인라인롤러를 즐기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신나는 축제일 듯.

엄홍길 선수와 함께 하는 산행축제는 8월29일 송암 스포츠타운 하늘정원부터 향로산으로 이어진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

9월3~5일 열리는 레저 베품시장에서는 쓰지않던 레저용품을 싸게 사고 팔 수 있고 강원FC, 우리은행 한 새농구단, 홍보대사 연예인 등 스타들의 소장품을 구입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댄스, 연극, 음악, 마임, 무술 등 장기가 있는 시민이나 단체는 시민자유공연 페스티벌 무대에 설 수 있다.

플로어볼, 스포츠찬바라 등 흥미 만점의 뉴 스포츠들도 레저대회 기간 내내 체험 가능하다.

또 인공암벽 판넬, 장애물 코스 등 암벽 체험을 하는 로프코스 체험프로그램이 용기있는 청소년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 250-4050

송암스포츠타운 인라인트랙 경기장

누구나 무료 이용, 관람도 쾌적하게

송암스포츠타운의 인라인트랙 경기장은 국내 최초로 트랙과 로드코스가 같이 만들어져 있는 최신시설이다.

1,800석의 관중석을 사이에 두고 안쪽에는 200m 규격의 트랙이, 바깥에는 400m 규격의 로드코스가 나란히 있다. 국내 대다수 경기장의 경우 관중석이 트랙과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곳은 전용경기장답게 트랙과 맞붙어 관중석에서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다. 또 관중석에는 그늘막이 있어 한여름 따가운 햇빛을 피해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다.

경기장 바닥은 코리실로 된 국제 공인 재질로 깔아 스피드와 안정성을 높였다. 조명탑이 있어 야간경기도 가능하다. 지난해 여름에 열린 국제레저프레경기대회 때 야간경기도 치러졌다. 이곳에서는 올해 월드레저경기대회 때 춘천월드레저컵 전국 인라인롤러대회가 열려 3,000m 계주를 비롯해 각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시설 사용은 무료이며 동호인단체의 경우 다른 팀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춘천시 국제행사팀 시설지원계에 문의해야 한다.

운동삼아 찾는 일반인들은 사전 문의없이 현장에 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주말에는 40~50명, 평일에는 10여명이 찾아 즐기고 있다.

문의 : 250-4723

인라인 트랙 · 로드경기장



마적산 → 경운산 → 배후령 정상

오봉과 부용의 사랑 노래, 경운산의 진달래꽃

전상국 (소설가, 김유정문학촌장)

배후령 터널 공사가 한창인 마적산

마적산 자락 배후령의 그 안개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나라 최고 길이의 배후령 터널 공사와 함께 신북~용산~서면으로 이어지는 춘천분지의 산록 완사면을 휘도는 외곽 순환도로 공사가 한창이었던 것이다. 앞으로 이 우회도로는 용산리와 서면 서상리를 가로지르는 북한강 교량건설만 완성되면 그야말로 춘천 관광산업의 벨트가 될 것이 분명하다.

샘밭 마지기 마을 뒷산이 마적산(馬蹟山) (605.2m)이다. 옛날 대마 농사를 많이 짓던 데라 하여 마작산(麻作山)이라 불리기도 했다는 이 산은 마을 산자락 어딘가에 장수 말 말굽 자국이 찍혀 있는 바위가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 산 이름 전설도 전해진다. 기다리던 장수가 태어나지 않자 그 장수 말이 울면서 사라졌다는 전설까지. 마적산으로 오르는 길은 배후령 입구 강원대 농장이나 수자원공사 관리소 쪽에도 있지만 상천초교와 동원학교 뒤쪽 청국장 전문식당 ‘풀내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등산길에는 정신지체아 및 지체부자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인 춘천동원학교 학생들의 심신수련을 위해 마련한 산길 여러 곳에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라’ 는 등 일곱 개 이야기가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어 눈길을 끈다.

산을 치오르는 것이 내려오는 산행보다 몇 배 더 흥취가 있는 법. 자갈한 소나무 숲 사이로 운치 있게 뻗어 오른 등산길에서 새하얀 옷음으로 반기는 바위틈의 말발도리 꽃도 내리막길에서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쌓여진 꽤 높은 돌탑을 지나 조금 더 오른 산봉우리에 마적산 표고가 적힌 비석이 서있다. (‘풀내음’ 에서부터 1시간 30분)

마적산은 그 정상부터 다시 치오르는 길 위의 연봉들의 높이가 더 높다. 정상의 표고 표시 비석이 없다면 많이 혼란스러웠을 터.

정상에서 약 30분쯤 올라가면 산길을 똑 잘라 그 한가운데로 길을 내다 만 폐도를 만난다. 바로 그 폐도까지를 마적산으로 봐야 옳을 듯 싶다.



경운산 8부능선에서 만난 수백년은 족히 됐을
두아름드리 소나무

수백 년 풍파를 이겨낸 노송이 거기 있었다

지금은 청평사 뒷산을 오봉산이라 부르지만 예전에는 청평산 혹은 경운산이라 불린 기록이 보인다. 실제로 마적산이 끝난 폐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운산은 산행 표지판에만 그 이름일 뿐 엇비슷한 연봉 어디에도 경운산 표고를 쓴 비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등산객들은 산행 표지판이 ‘배후령, 끝봉(청평사), 마적산’으로 돼 있는 세 가닥 갈림길 지점(785.6m)을 경운산 정상쯤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눈짐작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경운산 정상(794m)은 세 가닥 지점에서 정확히 400미터를 더 올라야 만날 수 있다.

그 정상 봉우리 근처 절벽 바위 위에서 바른쪽으로 건너다보이는 오봉산(779m)과 부용산(882m)의 위용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남성적인 부용산이 너른 어깨로 기암괴석의 아기자기한 오봉산을 뒤에서 지긋이 끌어안고 있는 형상이야말로 사랑 나누기 바로 그 모습이다.

노랑제비꽃 군락과 희롱하며 산을 오르다 보니 마적산의 진달래꽃이 다 떨어진 것과 달리 경운산에는 그때까지도 오월 철 늦은 진달래가 한창이다. 부용과 오봉의 사랑 노래, 그 흥겨움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이날 산행의 가장 큰 보람은 마적산 끝 폐도에서 시작해 치오르는 경운산 8부능선쯤에 서 있는 대여섯 그루의 노송과의 만남이었다. 두 아름이나 되는 노송들은 수백 년 풍상을 견뎌낸 그 위용으로 앞으로도 지내온 그 세월만큼 더 거기 오래 머물러 있을 터. 나무의 위대함이 새삼스레 가슴을 적시면서 그 노송 곁에서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았다.

오봉산과 배후령으로 내려가는 길이 갈리는 산불감시탑에서 잠시 청평사 계곡을 내려다본 뒤 곧바로 왼쪽 가파른 길로 내려오니 배후령 정상(600m)이다. 이제 이 고개도 터널이 뚫리는 것과 동시에 수명을 다 할 것을 생각하니 그 동안 이곳을 넘어 다니던 감회가 크다. 천전리 ‘풀내음’에서부터 배후령 정상까지 8.4km, 약 5시간 20분.

*** 다음 산행은 배후령~춘천댐 방면 새밀고개 구간입니다.**

산행코스문의 : 010-3617-4881



배후령 능선에서 내려다 보이는 소양호 청평사 뱃길



문화사랑방 |

2010춘천청소년문화존

청소년 모여 토요일 오후를 유쾌하게

봄 햇살이 나른하게 흠어지는 토요일 오후,
어느 가수의 노래처럼 '뭐 신나는 일 없을까?'
만약 갈 곳이 없다면 아무 채비할 필요도 없이
맨 몸으로 공지천 의암공원에 나가자.
청소년들을 위한 놀거리와 체험거리가 공원 여기저기에 펼쳐져있다.

2010춘천청소년문화존은

여성가족부와 춘천시의 지원을 받아 춘천 YMCA 등이 주관하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쉼터다. 올해는 지난 4월24부터 시작돼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계절에 따라 조정)에 진행된다.

이 쉼터에는 춘천YMCA를 비롯,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강원대 영어영문학과, 모형항공기 박물관, 한림성심대 사회복지학과 등이 참여해 청소년들의 문화·레저 체험을 돕는다.

의암공원 옆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는 트라이 포트, 에스보드 등 뉴스포츠를 무료로 빌려주며

스피드민턴, 패드민턴도 해볼 수 있다.

열기구 타기(6월5일)와 모형항공기 제작교실(6월5, 26일)도 마련돼있다. 또 점핑클레이, 천연비누, 염색, 소망풍선 만들기 등 여러 가지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댄스, 노래 등 끼가 넘치는 청소년들의 공연도 펼쳐진다. 6월12일에 의암공원 작은 무대에서 청소년 공연이 준비돼있으며 무대 앞쪽으로는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를 나눌수 있는 영어 카페가 열린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현장 접수 후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문의 : 244-1388

교육부 인정 현장활동 프로그램

입학사정관계가 도입되며 봉사경력, 특기, 특별활동 등 학생 개개인의 ‘스펙’이 중시되고 있다. 춘천시청소년수련관이 입시 ‘스펙’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프로그램은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도로 탁구·에어보드·트위스터 등 신체활동, 지역환경 클린 캠페인 등 자원봉사, 드럼·기타·바이올린 등 자기개발, 1박2일 간의 래프팅과 농촌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각 프로그램 영역마다 6개월을 선택해 참여하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하는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첫 기수를 모집중이며 20명 우선 선착순 모집.

문의 : 244-1387

화차·화석 전시, 무료 청소년 연극

춘천시청소년수련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과학전시와 청소년 연극을 선보인다.

5월30일까지는 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에서 옛날 화차와 화석 등이 전시된다. 조선시대에 쓰던 신기전기 화차와 총통기 화차를 구경할 수 있다.

또 곤충·식물·어류·화석 등의 표본과 사진은 물론 바다생태를 실물로 재현해 전시하는 어류디오라마가 전시된다. 개관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끼많은 언니 오빠들로 구성된 극단 ‘고양이 다방’은 연극을 들고 춘천의 청소년들을 찾아온다. 연극 ‘나의 열 살’은 어린이의 방황과 가족애를 그린 작품. 대학생들 스스로의 경험과 열정을 담아 직접 제작했다. 6월12일 오후 3시 춘천시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 무대에 올려진다. 문의 : 244-1387

청소년 자원봉사 교실

춘천시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 자원봉사교실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자원봉사교실에서는 자원봉사를 무엇인지,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지 봉사자들로부터 배우고 봉사활동 이후에 얻을 수 있는 성취감과 만족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춘천시자원봉사센터 1층 교육장에서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리는 이 교실은 관내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참석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257-0202

함께 노는 공간, 찾아가는 놀이터

구수한 우리 놀이 같이 해요

가족과 아이들이 너나 없이 어우러져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4시 공지천 조각공원에 마련된다.

이 놀이터는 춘천의 문화와 전통놀이를 사랑하는 어른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 ‘찾아가는 놀이터’가 주도하는 것.

일촌공동체 강원본부와 춘천좋은엄마모임이 후원하고 춘천시자원봉사센터 가족봉사단, (사)춘천마임축제, 강대사진동아리 ‘봄내’ 등이 힘을 합쳐 놀이를 벌인다.

이 놀이터에서는 아트풍선 만들기와 함께 제기차기, 단체 줄넘기, 웃고 있는 가족사진 만들기 등의 놀이가 펼쳐진다.

찾아가는 놀이터는 어린이 관련 단체나 시설, 가족단위 행사 등에서 초청한다면 방문도 한다.

단오를 앞둔 6월12일에는 사복면 고탄 솔뫼마을에 놀이터가 꾸며진다.

이곳에서는 창포물로 머리감기 그네놀이, 제기차기, 팽떡기 등 농촌의 너른 땅에서 흠뻑새를 맡으며 뛰놀 수 있는 전통놀이들이 펼쳐진다. 고탄 친환경 쌀로 떡메치기도 한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찾아가는 놀이터를 주도하는 신대수 씨는 “잊혀져가는 전통놀이를 하며 마음을 나누고 싶다”며 “놀이터로 나와 구수한 우리 놀이를 함께 하자”고 권했다.



봄내

2010춘천마임축제 5월30일까지

5월의 끝자락에서 예술 속으로

춘천시민과 공연예술 마니아들의 성원 속에서 지난 5월23일부터 2010춘천마임축제가 시작됐다. 축제 막바지를 향하며 축제의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축제의 클라이맥스는 28일 저녁부터 밤을 새워 이어지는 미친 금요일(28일)과 도깨비난장(29일). 28일에는 공지천 일대 우다마리와 어린이회관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환상적인 공연들이 줄을 잇는다.

29일 오후 1시부터는 우다마리 일대에서 다양한 야외공연이 펼쳐지며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컨벤션홀에서 미디어 공연과 미디어 전시 프로그램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디어 퍼포먼스 테크노 파티형 프로그램이라는 진기한 난장이 벌어진다.

미친금요일과 테크노파티는 미성년자 입장 불가다.

29일과 30일 주말 내내 우다마리에서 재밌는 예술체험과 해외의 이상아릇한 공연들도 만날 수 있다. 30일에는 폐막 난장 애우다마리가 진행되며 오후 5시부터 공지어 9,999마리를 태우며 소원을 빌고 대동놀이로 축제의 막을 내린다.

문의 : 242-0585 www.mimefestival.com

문화 소식

소양강 앞에 두고 연희한마당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매년 품격높은 전통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였던 소양예술농원(북산면 청평리)이 올해도 한국전통연희한마당을 준비했다.

지난 5월16일 ‘김덕수와 함께하는 전통연희 한마당’을 시작으로 공연 릴레이가 시작됐다.

공연일정은 △6월20일=진도씻김굿 △7월18일=신산대놀이 △8월15일=소양강에서 만나는 클래식 향연 △9월19일=신남사당놀이 △10월17일=연희콘서트.

공연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되며 소양강댐 선착장에서 소양예술농원으로 건너가는 배(무료)가 오간다.

문의 : 016-9211-6357

춘천문화예술회관 6월 공연

6월에는 상반기를 결산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도 크고 작은 공연들이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준다.

공 연	일 시
춘천시립합창단 65회 정기연주회	6.3. 19:30
강원청소년교향악단 연주회	6.5.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6.10. 19:30
6월의 하모니(춘천YMCA합창단, 춘천레이디스앙상블, 춘천기타앙상블)	6.12. 15:30
춘천플룻앙상블 연주회	6.14. 19:30
KBS교향악단 연주회	6.15. 19:30
춘천시립교향악단 95회 정기연주회	6.17. 19:30
강원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 연주회	6.19. 19:30
춘천청소년교향악단 정기연주회	6.23. 19:30
강원오페라단 '카르멘'	6.25.

문의 : 250-3593

추억한토막



미스 개나리의 화려한 카 퍼레이드



1966년 4월21일부터 23일까지 제1회 개나리문화제가 열렸다.

개나리문화제는 지금의 소양제의 전신.

개나리문화제는 1960년대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발돋움하며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였다. 고전무용, 궁술대회, 봉의산 등불 밝히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으며 미스터 개나리와 미스 개나리를 뽑아 카 퍼레이드를 펼쳤다.

사진은 미스 개나리가 카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 미스 개나리 선발대회는 사라졌지만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미스 개나리를 보려고 까치발을 들던 어린 시절의 추억은 아직도 시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

이달의 좋은 책 |

추천 = 춘천시립도서관

흙을 밟으며 살다



지은이 | 윤구병
펴낸곳 | 휴머니스트

‘30년 묵은지’의 지혜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 윤구병의 에세이 〈흙을 밟으며 살다〉는 농부가 된 철학자이자 변산공동체를 만든 윤구병이 사유하고 실천한 삶의 정수를 묶은 책이다. 함께하는 삶, 자연과 인간을 살리는 생명, 일과 놀이 등 세상 미물들에 대한 사랑과 그것들과 함께 살고자 한 그 애씀의 과정을 담아 ‘공존’ ‘생명’ ‘교육’이라는 주제로 묶었다.

담배 한 개비의 시간



지은이 | 문진영
펴낸곳 | 창비

이 소설은 청년세대가 고유하게 포착할 수 있는 일상세대의 현실과 문화적 감수성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최저임금의 경계에서 떠도는 불안한 젊은 이들이 ‘강남대로 한복판의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나고 헤어지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의 세밀한 포착은 이 소설이 주는 여운과 공감을 크게한다. 제3회 창비장편소설상 수상작. 작가는 춘천 출신이다.

이 장면을 아시나요

: 김동규의 오페라 이야기 1,2



지은이 | 김동규
펴낸 곳 | 생각을 담는 집

김동규는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가수다. 모든 성악가들의 꿈의 무대인 이태리 스칼라 극장에 최초로 선 한국 성악가인 저자는 오페라 전체를 들려주고 싶은 욕구 하나로 마치 유랑극단에서 변사가 들려주는 것처럼 오페라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오페라 한 장면 한 장면이 사진과 함께 설명돼 있으며 창작 배경과 노래의 의미 등이 쉽게 해설돼 있다.

축제극장 ‘몸짓’ 이 지난 5월19일 문을 열었다.

이어 24~25일에는 2010춘천마임축제의 해외공식초청작품이 무대에 올려졌다.

축제극장 ‘몸짓’ 을 위탁 운영하는 춘천마임축제의 유진규 예술감독이 극장의 특징과 운영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진규(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

축제극장 ‘몸짓’ (효자동 국민생활관 앞)은 마임 전용 소극장을 짓자는 말이 나온 지 무려 8년만에 지어졌다.

좋은 터를 찾기 위해서 보낸 긴 시간만큼 개관과 함께 2010춘천마임축제의 첫 공연을 치른 감회는 무척이나 깊었다.

춘천을 세계적인 예술도시로 한 단계 격상시킬 이 극장의 이름은 축제극장 ‘몸짓’ .

마임 뿐 아니라 몸짓(몸, 움직임, 이미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예술 장르를 아우르고 누구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예술을 즐기자는 의미로 붙여졌다.

7m 높이 텅빈 블랙박스만 있는 극장

극장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500여㎡ 규모로 150석의 공연장과 연습실, 분장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 극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소극장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블랙박스형 극장이라는 것. 1층 좌석은 서랍식으로 수납할 수 있는 구조다.

좌석을 서랍 속에 넣어버리면 너비 10m, 높이 7m의 텅빈 사각형 공간만 남게 된다.

이 공간에서 다양한 장르와 새로운 형식의 공연예술을 자유롭게 선보일 수 있다. 극장 밖 뒤편엔 야외무대가 있고 앞쪽에도 너른 야외 공간이 있다. 거리 공연이건 무대공연이건 여러가지 공연예술을 펼치기에 제격이다.

극장 입구엔 카페테리아 ‘몸’ 이 자리잡고 있다.

공연을 보기 전후, 그게 아니라면 거리를 걷다가 불쑥 들어와 차 한 잔 마시기 좋은 곳이다. 서울이나 유럽에는 공연장과 카페에서 문화와 예술 정보를 나누는 게 흔한 풍경. 춘천에서도 카페테리아 ‘몸’ 이 예술인과 시민들의 포근한 문화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축제극장 ‘몸짓’ 은 춘천문화예술회관과 국민생활관과 나란히 자리를 잡았다.

앞으로 약사천이 복원되면 중앙로부터 이곳까지 문화예술의 거리로 이어질 예정이다라니 이곳에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잦아질 것에 기대가 크다.

‘몸짓’

‘2010춘천마임축제’와 함께 문연 축제극장

세계적 예술도시로 춘천 알릴, 너른 터



제작공연을 통해 세계적인 축제극장 ‘몸짓’으로

남부로타리에서 윤교동 사이 6차선 도로에서 만나게 되는 축제극장 ‘몸짓’의 자태는 세계로 웅비할 듯 힘차다.

이 극장은 춘천을 ‘마임과 몸짓의 도시’로 만들라는 의미에서 국비와 시비 35억여원을 들여 만들어졌다. 때문에 단순한 지방 소도시의 작은 소극장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몸짓극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려면 특색이 있어야 한다. 한국인의 혼이 실리고 안개와 호수가 아름다운 춘천의 느낌이 담긴 몸짓을 무대에 올려야 한다.

그러나 큰 걱정이 있다. 이처럼 의미있는 극장을 자

립 운영해야 하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아 자칫 운영을 잘못하면 아무런 특성도 없는 대관 극장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축제극장 몸짓은 춘천의 모든 공연예술, 몸·움직임·이미지를 보여주는, 예술가와 관객이 신명나게 노는 모든 공연예술을 위해 활짝 문을 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향의 예술을 기획하는 제작극장, 누구나 축제처럼 즐기고 발산하는 축제극장으로 나갈 것이다.

그것이 축제극장 ‘몸짓’을 세계적 극장의 대열에 올리는 길이며 춘천을 세계적인 예술의 도시로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임축제 일정안내 24면〉

미술 전시공간 된 교동주민센터 이웃과 어울려보는 ‘우리들 작품’

“와~ 여기 친구들 그림이 걸렸네”

교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의 숨씨를 자랑하는 전시공간으로 변했다.

춘천시가 교동주민센터의 민원실 한켠 자투리 공간을 주민들의 문화 나눔터로 활용하자며 일을 벌인 것.

교동주민센터가 섣뚱 동의를 했고 춘천미술관은 전시기획과 작품관리를 돕기로 했다. 한 광고업체는 홍보배너를 협찬했다. 4월29일 개관 행사에는 관현악 동아리인 춘천팝앤재즈오케스트라가 찾아와 작은 음악회로 축하해 주었다.

첫 작품 전시는 교동초교 어린이들의 꽃내나는 그림 10점이 전시됐다. 과학의날 사생대회에서 뽑힌 우



수작품들이다.

교동초교 학생들은 방과 후 주민센터를 찾아 친구들 이름과 작품을 찾느라 분주했다. 작품이 전시된 송운정(교동초교 5년) 양은 “할아버지까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제 그림이 주민센터에 걸렸다면 자랑하시니까 뿌듯해요”라며 수줍게 웃었다.

앞으로 교동주민센터의 전시공간은 누구에게나 늘 무료 개방된다. 미술, 서예, 조각 작품 등 누구나 전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딱딱한 분위기의 관공서가 동네이야기를 만들고 나누는 참여와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문의 : 250-3541 전경해 명예시민기자

20년 넘게 장애인의 손발이 된 하혜숙 씨 가진 것 모두 나눠주는 나눔천사



하혜숙(효자동·58) 씨는 하루하루가 바쁘다. 목요일에는 김치를 담그고, 금요일에는 반찬을 만든다. 토요일 아침 7시부터는 홀몸노인,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등 16개 가정에 남편 유병수(63) 씨와 함께 반찬배달

을 하면서 그들의 식사를 돕고 있다. 도시락 봉사를 한지는 4년이 됐지만 자원봉사는 20년이 넘었다.

하 씨는 1989년부터 누워서만 생활하는 전신마비 장애인가정(청각, 언어, 루게릭병)을 방문해 장애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이 매우 불결한 환경에 처해있는 게 안타까워 집안청소는 물론 식사준비까지 손수 돕고 있다.

하 씨는 어려운 이들에게 꼭 필요한 손길을 가진 따뜻한 이웃집 아줌마이면서 잘 안되는 대화까지 몸짓과 미소로 나누는 장애인들의 친구이다.

하 씨는 지금 강원도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소에서 11년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월드비전 춘천복지관, 강원재활원 등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제10회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을 받기도 했다.

“하는 일이 별 것 없다”며 부끄러워하는 하 씨는 “춘천시민들이 마음을 모아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들이 힘차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넉넉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화숙 명예시민기자

팔미2리 설미마을의 두부만들기 체험 시골콩으로 만드는 고소한 두부

도시민들을 초대해 시골에서 직접 재배한 국산 콩으로 고소한 두부를 만드는 체험행사가 신동면 팔미2리 설미마을에서 열렸다.

지난 4월24일 경기도와 서울, 춘천 주변 등 30여 도시가족이 두부만들기 체험을 하러 모였다.

이날 행사는 콩을 씻어서 두부콩을 가는 것으로 시작했다. 주부들은 두부가 완성되기까지 설명을 듣고 보면서 꼼꼼히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느라 분주했다. 아빠들은 두부 자루를 눌러서 짜고 아이들은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광경을 신기한 듯 구경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뭉치뭉치해도 행사장 옆에서 할머니들이 부친 메밀부침과 전병, 직접 담근 동동주 맛을 보는 것이었다. 팔미2리 경로당 회원들이 들과 산에서 캔 곰취와 두릅, 냉이 등 싱싱한 산나물과 농산물을 고르고 시는 재미에 주부들은 더 신이 났다.

행사에 참가한 이미경(경기 구리) 씨는 “시골냄새 맡으며 두부만들기도 배우고 산나물도 먹어서 너무 재미있었어요. 집에 가서 그대로 따라해 봐야죠”라며 봄들처럼 푸르게 웃었다.

팔미2리 설미마을은 매월 네째주 토요일에 도시민을 초대해 두부만들기 체험을 한다.

마을주민들은 이곳에서 두부체험을 한 후 두부나 비지 등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준다. 또 수익금은 소년소녀 가장돕기에 쓰여 더욱 뜻 깊다고.

문의 : 011-365-7469

황인수 · 정한길 명예시민기자



주말마다 야구대회 구경오세요

2010 춘천시장배 전국 호반리그 사회인야구대회가 지난 3월 말 개막해 주말마다 춘천을 야구 열기로 달구고 있다. 2010 사회인야구대회에는 춘천과 수도권에서 모두 63개 팀 1,3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지난 4월6일부터 경기에 들어가 송암스포츠타운 야구장, 모터파크 야구장, 춘천중 야구장 등 3개 구장에서 11월 말까지 총 600여 경기가 펼쳐진다. 경기는 주말마다 열린다.

문의 : 010-2388-1998 최범식 명예시민기자

당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지난 5월9일 공지천 야외음악당에서 밀알 재화원이 마련한 나눔잔치인 ‘제3회 당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재화원을 개원한 지 15주년을 맞아 바자회 뿐 아니라 강원국악예술단, 미리내 색소폰 합주단, 밀알재화원의 밤벨합주단 하모닉스 등 야외공연도 열려 볼거리가 풍성했다.

관람객의 절반 이상은 장애인이었지만 공지천에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도 공연을 함께 보고 바자회 물건을 싸게 사며 즐거워했다. 바자회에 내놓은 문구류나 장난감, 한복은 인기였다.

박건화 (47·온의동)씨는 “아이의 장난감과 개량한복을 싸게 샀어요”라며 “장애인도 돕고 물건도 싸게 사니 더 좋네요”라며 싱글벙글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지적장애인들의 재활기금으로 쓰인다.

함해인 명예시민기자



사랑나눔 빨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디딤돌 프로그램 참가자들

신북읍 용산리에 위치한 ‘사랑나눔 빨래방’에선 아침부터 커다란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집에서 걷어온 이불 등으로 무료로 빨아주는 소리다.

이곳에서는 다섯 명의 디딤돌 프로그램(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가 일하고 있다.

이 디딤돌 프로그램은 춘천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자활근로 프로그램 우울증이나 알코올, 심리적인 고립 등으로 일할 의욕이 없어진 춘천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상담과 대화, 산책, 인문학 강의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고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컴퓨터 기초교육, 취업

춘천지역자활센터의 디딤돌 프로그램

“무기력했던 삶에 의욕을 드려요”

교육, 자원봉사 등을 하며 사회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지난해 6월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관호(53) 씨는 무기력했던 삶에 새로운 자신감이 생겨 이젠 일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됐어요” 라고 했다.

디딤돌 프로그램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면서 질병이나 무력감 등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화~목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1회 참여시마다 6,000원의 실비를 주며 프로그램 후 상담을 통해 자활근로나 일자리를 연계시켜준다.

문의 : 253-4575 공윤자 명예시민기자

세린식품, 춘천서 80명 채용해 가동 시작

만두제조업체인 세린식품이 춘천 퇴계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로 짓고 본사와 공장을 이전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옮겨온 세린식품은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목우촌, 에버랜드 등에 ‘맑은 농가’ 라는 브랜드로 만두를 납품하고 있는 중견 식품 제조업체. 창립 10년을 맞은 세린 식품은 창립 초기부터 꾸준히 손으로 빚은 수제 만두와 반수제 유기농 만두로 특화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전 공정이 기계화·자동화된 이 회사는 춘천에서 생산직과 관리직 등 80여명을 새로 채용하고 지난 4월 중순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세린식품은 앞으로도 꾸준히 사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문의 : 031-356-6004

이것만은 고칩시다 |

거리에 껌, 침 뱉지 맙시다

봄 햇살 받으며 가족과 함께 공원 나들이를 나선 봄내 씨.

차를 세워놓고 줄줄이 사탕처럼 온가족 손잡고 기분 좋게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안떨어지는 건 왜일까? 아뿔싸! 신발바닥에 껌이 붙었다.

핑크린 얼굴로 인도바닥을 간간히 살펴보니 검은 껌자국 천지! 간간이 가래침 자국도 한 몫한다.

깨끗한 청청 춘천을 더럽히는 껌과 침, 뱉지 말고 휴지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자.



일러스트 | 김태완

소양강댐 물속에 잠긴 사전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

학교는 사라졌지만 마음은 초등학생

지난 5월8일 어버이날 오전 10시부터 북산면 사전초등학교 충동문화 한마음 체육대회가 추곡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북산면 사전초등학교는 1973년 소양강댐이 생기면서 학교를 비롯하여 사전리 마을 전체와 함께 수몰됐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폐교된 것도 아니고 학교를 물 속에 묻어두었기에 사전초교의 동문체육대회는 동문들에게 더욱 남다른 감회로 다가오고 있다.

사전초교 동문회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동문체육대회를 열어 잊혀져가는 얼굴과 추억들을 떠올리고 있다.

올해는 모두 200여명의 동문들이 모였다. 57세부터 74세까지 까까머리 밤톨같은 아이들은 모두 초로의 노인이 됐다.



사전초등학교 동문회원들이 윷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동문들은 윷놀이, 족구, 공던지기 등을 하며 마음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 서로의 이름을 장난스레 부르며 술잔을 기울였다.

박승욱(69) 사전초등학교 충동문화장은 “일년에 한번이라도 동문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며 “언제까지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고향을 회상하고 싶다”고 했다.

황인수 명예시민기자

독자투고

잠자는 동전을 깨우자

조은희(근화동)



누구나 집에 돼지 저금통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저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저 별 생각없이 동전을 쌓아두는 집도 적지 않다.

동전이 그만큼 값어치가 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신폐인 10원짜리 동전은 크기도 작고 무게도 적어 있는지 없는지, 천대를 받는 신세다. 정부 차원에서는 동전의 원료인 니켈과 동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원가 절약 차원에서 크기와 무게를 줄인 것이란다.

원가를 아끼느라 동전 크기를 줄인 만큼 우리도

동전을 집에서 잠재우지 말고 모두 사용해보자.

은행에 저금도 하고 공과금을 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개인이 동전을 아무렇게나 굴릴 때는 아무 효용이 없지만 국가 전체의 동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척 큰 액수가 될 것이다.

작은 동전 하나지만 티끌모아 재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잠자는 동전을 깨우자.

동전을 굴려야 비로써 제 구실을 하게 되고 경제도 살아난다. 우리 모두 잠자는 동전을 쏘아내자.

우·리·동·네·소·식·통

●북산면 대곡리 마을에서는 4월23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곡마을호 진수식이 거행됐다. 대곡리는 춘천에서 유일하게 육로가 없는 마을로 소양강댐 건설 후 40여년 가까이 주민의 최대숙원사업이었던 차를 실을 수 있는 총19톤 규모의 선박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영농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사우동 우두성당의 빈첸시오 자원봉사단은 4월12일부터 이틀간 관내 어려운 홀몸노인의 가정에 지붕처마수선 등 집수리 봉사를 했다.

●동내면 신촌1리 '대해마을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위원회'은 4월29일 커피테마파크 일원에서 학생,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내초교생 사생대회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전통 먹거리 체험, 꽃길 자전거 타기와 자매결연 협약식 등 농촌관광 활력화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앞서 신촌1리 주민50여명은 4월21일 야생화 꽃길 조성을 위해 신촌천 주변에 벌개미취 3만여개와 토종 개복숭아 180주를 식재하였다.

●북산면 조교2리 주민 30여명은 4월16일 인제군 북면 월하리 냇강마을을 견학했다. 냇강마을은 2008년 새농촌건설운동 대표모델마을로 선정된 바 있다.

●강원대학교 직원으로 구성된 따스미봉사단은 4월19일 효자2동의 3쌍둥이 저소득 가정이 생활이 어려워 유아를 키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금을 모아 분유 및 기저귀 8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후평2동 복지위원회는 4월17일 주민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생필품 및 먹거리 판매 등 사랑나눔 바자회를 했다.



●우두동 주민 전순란 씨는 4월23일 떡(10만원 상당)을 만들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위로 격려했다.

●춘천MBC 기자 등 20여명은 4월26일부터 이틀간 서면 소매리와 오월리 두 가구에서 호박비닐 멀칭작업, 감자밭 제조작업 등 봉사활동을 했다.

●남산면 소재 남산감리교회는 4월29일부터 격주로 노인대학을 열어 지역노인들에게 무료 급식과 이마용, 진료를 하며 노인을 위한 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춘천농협이 주최하는 '제11회 실버한마음 축제'가 5월8일 신동 춘천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원로조합원, 가족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는 5월6

일 우두동 새청경로당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및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민 정금순(여·67)씨는 5월7일 동내면 사암4리 노인정 건축부지로 자신의 소유 토지 827㎡(250여평)을 사암4리 개발위원회에 기증했다.

●약사명동 하트뱅크봉사단은 4월15일 관내 조손가정을 방문하여 도배, 장판 등을 교체해 주는 봉사를 했다.



●농협중앙회 춘천시지부는 5월11일 소양동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들 100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사우동 지역사회 봉사단은 4월29일 사농동 저소득 가구를 방문해 도배, 장판, 페인트 칠 등 집수리봉사를 했다.

●석사동 자생단체 주관의 '석사동 경로잔치'가 5월7일 벌말공원에서 어르신과 초청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석사동 '안경만들기'에서는 4월28일 석사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돋보기 100개(15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 춘천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사장추천위원회’ (사장 추천)가 ‘임원추천위원회’ (사장,감사,이사 추천)로 확대 개편되고 위원회를 공사·공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 ① ‘사장추천위원회’ 를 ‘임원추천위원회’ 로 확대 개편
- ②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됨
- ③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수당 이외 이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 지급 가능

□ 춘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사장추천위원회’ (사장추천)가 ‘임원추천위원회’ (사장,감사,이사 추천)로 확대 개편되고 위원회를 공사·공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① ‘사장추천위원회’ 를 ‘임원추천위원회’ 로 확대 개편

- ②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 아닌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됨
- ③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 이외 이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 지급 가능

□ 춘천시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 폐지이유 :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사장추천위원회’ (사장 추천)가 ‘임원추천위원회’ (사장,감사,이사 추천)로 확대 개편되고 위원회를 공사·공단에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춘천시지방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를 폐지

● 주요내용 : ‘춘천시지방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개정이유 :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춘천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 방위지원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을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 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에 맞도록 보완 및 정비코자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 ① 법조문을 상위법규에 맞게 정비
- ②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상위법규에 맞게 정비
- ③ 춘천소방서장 및 춘천시재향군인회장 추가
- ④ 통합방위 상위법규와 중복 규정된 항 삭제
- ⑤ 통합방위협의회와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 등

□ 춘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개정이유 :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06.1.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에 대하여 계속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자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 ① 지방소득세 도입과 사업소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의 세율 적용

□ 춘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고자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 ① 시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함
- ②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과 서식을 재편성함

□ 춘천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개정이유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수혜대상 폭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조정

(수변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는 수변구역 내 거주자에서 관할 시·군·구(춘천시) 거주자로 조정

□ 춘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개정이유 :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증원가능 인력 20명을 증원하여 신규 행정수요 증가 및 역점시책분야에 인력을 충원,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하고자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정원의 변경 (총 정원 : 1,348명 → 1,368명(20명 증원), 집행기관 정원 : 1,324명 → 1,344명(20명 증원))

□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규제 조례·규칙 발굴·개선계획'의 정비권고에 따라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및 제9조를 개정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사용료를 반환함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
 -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이 취소·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부 반환
 -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춘천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개정이유 :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으로 기업이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조례정비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 ① 조례제명 변경 : 춘천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 ② 춘천시 산업단지특별회계 설치조례
 - ③ 특별회계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의 종류 명시

□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개정이유 : 관련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지나친 과태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순화하고자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해당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함' 으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된 사항.
 -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임

□ 춘천시 재해우려지구 정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개정이유 : 현 춘천시 재해우려지구 정비 및 관리조례는 2002. 2. 26.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하여 제정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법」이 법률 제7359호로 전문개정(2005. 1. 27)됨에 따라 재해우려지구의 원활한 정비·관리를 위하여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재해우려지구로 지정하여 시비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 춘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원안가결)

- 개정이유 : 현행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공무원직장협의회 권한과 기능은 사실상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기에 본 조례를 폐지.
- 주요내용 : 춘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 춘천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제정이유 :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외국인주민과 그 가정의 지역 사회 적응 및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외국인주민과 그 가정의 지역 사회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 ① 조례제명 변경 (춘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 춘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 ② 외국인주민 용어 반영 (거주외국인의 경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으로 한정. 외국인주민은 춘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90일을 초과하여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으로 함)

③ 외국인 지원범위의 확대(고향방문 사업 · 문화탐방 · 공연관람 · 선진지 견학 등)

□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개정이유 : 문화시설의 철거 및 신축에 따라 문화시설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시설사용료 등을 규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① 문화시설 범위에 축제극장 ‘몸짓’ 신설 및 시민회관 삭제
- ② 축제극장 ‘몸짓’ 시설 사용료 규정
- ③ 문화시설 사용 개시 이후 사용 취소시 납부 사용료 일부 반환
- ④ 관람료 감면 대상 확대 (국가유공자 등 전액 감면) 등

□ 춘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개정이유 : 예술단 운영의 전문성을 확대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연주기량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양질의 공연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

● 주요내용 :

- ① 예술단 운영 업무 (재)춘천시문화재단 위탁
- ② 청소년합창단 정원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
- ③ 운영위원회 폐지에 따른 운영위원회 기능 삭제
- ④ 청소년예술단원 별도 전형 없이 재위촉 가능

□ 춘천시 향토음식 발굴 · 육성 및 관리 조례안 (수정가결)

● 제정이유 : 춘천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의 계승 · 발전과 발굴 ·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통한 시민 이익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

● 주요내용 :

- ① 향토음식의 발굴 ·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향토음식위원회를 두도록 함
- ②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 · 육성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③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 ④ 시장은 향토음식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⑤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의 · 회 · 소 · 식



■ 한림대학교 법행정학과 학생들과 함께

한림대학교 법행정학과 학생 30여명은 5월6일 춘천시의회를 방문.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견학한 뒤 춘천시의회회의의 역할 및 입법기관으로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 2010년 제1회 어린이의회 개원

춘천시의회(의장=이건실)는 5월14일 호반초등학교 학생 45명을 초청해 춘천시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강습 · 모집

● 2010 제2기 여성회관 수강생모집

- 교육기간 : 7.5~11.19
- 과목 : ▶교양 · 문화(컴퓨터첫걸음, 컴퓨터활용, 엑셀과파워포인트, 신바람컴퓨터교실, 생활영어회화, 생활일어회화, 문인화, 한문서예, 한글서예, 신바람노래교실, 플루트교실, 포크기타, 한국무용, 우리소리, 수채화, 생활풍수지리, 생활속의명리학)
- ▶놀토 · 건강(라인댄스, 자연식 산사요, 홈베이커리, 건강다이어트요가, 국학기공, 재즈댄스, 댄스스포츠, 아로마건강맛사지)
- ▶창업 · 부업(동화구연, 심리미술치료, OP예쁜글씨, 천연비누와화장품, 실내조경, 화훼장식, 행사꽃꽂이, 홈패션, 생활양재, 의류리폼, 피부미용, 헤어미용, 한식조리, 양식조리, 말반찬만들기, 손님초대요리, 제과제빵, 퓨전요리)
- 모집대상 : 19세 이상 시민 (남성도 접수가능)
- 모집기간 : 6.14~6.17(인터넷선착순)
- 춘천시청홈페이지(www.chuncheon.go.kr) · 부서별홈페이지 · 여성회관 · 교육접수
- 수강료 : 월1만원(5만원 선납) / 놀토반 (2만원)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농협) 230-01-008787 예금주 : 여성회관
- 문의 : 춘천시여성회관(245-5190~1)

● 춘천시생활체육 프로그램(264-5750)

- 종목 : 인라인, 스쿼시, 배드민턴, 볼링, 탁구, 에어로빅
- 대상 : 시민 누구나

● 아침광장 프로그램(264-5750)

- 운영 : 월~금(아침06~07시)
- 종목 : ▲국학기공(공지천 조각공원) ▲생활체조(봉의산광장, 지석공원광장, 호반체육관광장, 퇴계공원광장, 소양중 운동장)

● 춘천YMCA 프로그램

- 과목 : 화가교실, 인형만들기, 바이올린반, 미니정원/토피어리, 커피바리스타, 부부합창단, 영어뮤직컬
- 대상 : 초등생~성인(기간 6월~8월)
- 자세한 문의 : 255-1001

● 춘천YWCA 프로그램

- 과목 : 산모 · 신생아 도우미교육, 간병사 보수교육, 기사도우미 양성교육, 패션페인팅, 노인동화구연 양성교육, 합창단 단원모집, 바이올린 자원봉사자
- 수강료 : 무료~6만원
- 자세한 문의 : 254-4878

● 춘천 청소년 문화의 집

- 과목 : 독서학교, 학생드럼, 성인드럼, 해금, 지능로봇만들기, 점핑클레이, 어린이스피치
- 대상 : 시민 누구나
- 문의 : 258-6633 / www.cc1318.or.kr
- ★썩크머니 학부모 경제특강:6.25(금)10~12시

● 춘천 흡사랑회 회원

- 대상 : 도자기 작업 유경험자
- 월회비 : 5만원(주3회)
- 장소 : 춘천예술마당내 창작관 306호
- 문의 : 011-9897-3760

● 소양정보도서관 프로그램

- 과목 : 저학년 역사논술, 어린이 테마논술, 중국사,

애니메이션 교실, 예쁜 손 글씨, 어린이 NE, 초등논술, 중등논술, 고학년 역사논술, 학부모 역사교실

★초등생 1일 생태체험 : 6.12(토) 애벌레 생태학교, 거미박물관/참가비 : 4만9천원

□ 자세한 문의 : 258-6636

● 퇴계동 주민센터

- 운영기간 : 7.1~9.30
- 모집기간 : 6.28~6.30
- 모집대상 : 관내 주민(퇴계동 주민우선)
- 수강료 : 3만원(만 65세이상은 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문의 : 250-3623, 254-6114
- 과목 : 댄스스포츠(초중급), 노래 및 체조, 농악교실, 춘천그린악단, 기타교실, 서예교실, 동아리(하모니카, 댄스, 오카리나), 자유이용(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

- 과정 : 정보화기초(야간), 엑셀&파워포인트, 홈패션, 일식조리기능사, 제과제빵기능사(야간), 컴퓨터기초(워드), 초등수학지도사, 실내원예조경사3급, 페이스페인팅3급, PC정비사2급, 엑셀(ITQ), 전산회계2급)
- 개강일 : 6월1일부터 순차적
- 수강료 문의 : 243-6474

● 호반테니스장 회원 모집

- 접수기간 : 기존회원(매월20~25일) 신규회원(매월26~말일)
- 강습일 : 주4회(강습일 신청자가 조정)
- 강습료 : 그룹강습(7만원) 개인강습(17만원)
- 문의 : 춘천시체육진흥재단(csp.or.kr) 호반테니스장(264-0279)

● ‘꿈마루’ 청소년수련관

- 과목 : 농어촌복지활동교육, 레크리에이션2급, 유스오케스트라, 드럼/기타교실, 드럼&난타교실, 영어교실, 청소년자원봉사교육,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공부방, 탁구동아리, 컴퓨터교실, 실버플래너, 비만클리닉 바우처 홀트레이닝 서비스
- 문의 : 244-1387~8

● 석사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6.22~6.30(선착순)
- 과목 : 기체조, 발리댄스, 필라테스, 요가교실, 라틴댄스, 모던댄스, 기타교실, 민요교실, 노래교실, 심리미술
- 수강기간 : 7월~9월
- 수강료 : 3만원(3개월분 선납)
- ※ 단, 65세 이상은 분기당 2만원
- 신청대상 : 관내 · 외 주민 (단, 심리미술과정은 2003년 이전 출생자)
- 문의 : 250-3622, 261-9325

● 어린이 리더십훈련

- 대상 : 초등4~6년(12명)
- 일시 : 6.7~7.26(매주 월 16:30~)
- 문의 : 어린이재단 춘천종합사회복지관 (242-0051)

신청 · 접수

● YMCA 아이 돌보미 신청

- 이용대상 : 만3개월~만12세 자녀를 둔 가정
- 사업내용 : 자녀양육 일반활동, 일시양육서

비스, 학습서비스 등

□ 이용료 등 문의 : 춘천YMCA(255-1006)

● 춘천YMCA 독서대학 개강

- 개강 : 5월27일(목) 저녁 7시30분
- 장소 : 동면 장학리 YMCA
- 과정 : 독서지도사 3급과정(총8주)
- 문의 : 255-1001

● 관광열차 운행

- 목적지 : 온달관광지 · 충주호유람선
- 운행일자 : 6.8(화) 06:20 남춘천역 출발
- 참가비 : 남춘천역 출발시(38,400원)
- 문의 : 남춘천역(257-7022)

● 장애인연금 사전 신청

- 대상자 :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 연령 : 신청일 당시 만18세 이상

□ 사전신청일 : 5월31일부터

※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계신 분은 별도 신청 절차없이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됨.

□ 문의 : 시청 복지과(250-3092)

● 2010 제1회 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 참가신청

- 참가비 문의 : 조직위원회 (250-4313, 4527) / worldleisure2010.org

대 회 명	신청기한
국제인라인슬라럼대회	6.30까지
춘천월드인라인킥 마라톤	8.15까지
전국 모형항공기 대회	6.1~7.31
전국 대학 비보이(힙합) 챔피언십 대회	6.30까지
전국 족구 최강전	7.1~7.31
전국 족구 대회	7.1~7.31
전국 인라인슬라럼 대학생 동아리대회	7.31까지
전국 엑스스포츠 B3 챔피언십 대회	7.31까지
제24회 전국남녀중별수상스키워야드보드	7.1~7.23
KDF 전국프로아마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7.30까지
전국생활체육포에이션 경기대회 & 마니아댄스 스포츠 경연대회	7.30까지
전국스포츠 클라이밍대회	8.20까지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7.31까지
전국인라인롤러 유소년대회	7.31까지
전국 스포츠피싱 대회	7.31까지

● 장애여성 출산비 신청

- 신청자격 :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에 거주한 출산여성 장애인
-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100만원
- 문의 : 시청 복지과(250-3092)

● ‘아이랑 엄마랑 행복한세상’ 참가신청

- 행사/장소 : 7.16(금)14시/도여성가족연구원
- 참여대상 : 3세이하 자녀와 부모
- 주최 : 춘천시여성단체협의회
- 행사내용 : 다자녀다복상 발굴,

모유수유 사진 콘테스트 등

□ 신청 : 6월30일까지

여성가족과(250-4218)

● 다자녀다복상 및 모유사진 콘테스트

- 접수기간 : 5.25~6.30

- 참여대상 : 만0세~3세 자녀와 부모
- 문의 : 춘천시 여성가족과(250-4218)
- 응모내용 :
 - ▲다자녀다복상 : 5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만3세 이하인 저소득층
 - ▲모유사진콘테스트(크기11cm×14cm)
- **1318 해피존 춘천하림 청소년센터**
 - 무료프로그램 : 방과 후 학습, 급식, 문화여가 활동, 진로 등 상담
 - 대상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중학교 1~2학년
 - 위치 : 한림대학교 정문 앞
 - 문의 : 243-1813
- **하림성심대학 평생학습 시간제등록생**
 - 과정 : 사회복지보육, 식음료디렉터, 부동산실무자, 차세대교육지도자
 - 자격 :
 - ①춘천 흥천 화천 양구에 거주하는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26세 이상)
 - ②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접수기간 : 5.11~6.4
 - 기타문의 : 교육기간, 수업료 등(240-9820)

행사 · 건강

- **춘천시립도서관 행사**
 - 6월 인문학 강좌 : 6.16(수 19시), 강사 채운(수유너머 강원연구원)
 - 춘천문학여행 : 6.17(목) '은마는 오지 않는다' 를 찾아가는 금산리 일대
 - 문의 : ☎250-3575
 - 도서관 작은음악회
 - 6.26(토 14시), 춘천시립교향악단
 - 발도르프인형극
 - 6.5(토 12시 시립도서관/16시 동내도서관, '새가 물어간 아이')
- **제1회 춘천작은도서관 책축제**
 - 일시 : 6월 5일(토) 오후2시~5시
 - 내용 : 책 읽고 체험활동, 전래놀이 등
 - 장소 : 어린이회관
 - 주최 : 춘천작은도서관협의회(010-7741-6002)
- **춘천대첩 재현행사**
 - 일시 : 6.25(금)11:00~(30분간)
 - 장소 : 동면 가래울 일대(7사단 참가)
 - 주요내용 : 춘천대첩 전투 재현 등
- **체육행사**
 - **강원FC 홈경기**
 - 6.6(일)오후3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 (경남FC 상대)
 - **춘천FC 홈경기**
 - 6.19(토)오후3시, 송암스포츠타운 주경기장 (무료입장)
 - **소양강배 배드민턴 대회**
 - 6.26(토)~27(일), 호반체육관 등
 - 접수마감 : 5.30(일)
 - 인터넷접수(<http://cafe.daum.net/ccminton>)
 - 문의 : 춘천시배드민턴연합회(254-4949)
- **2010 한국관광의 별 온라인 투표**
 - 시상 : 문체부 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

- 기간 : 4.26~5.30
- 투표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투표 (<http://award.visitkorea.or.kr>)
- ※ 투표 참여시 다양한 경품(넷북, 백화점상품권 등) 제공
- 문의 : 춘천시 관광과(250-3068)
- **춘천포크기타 앙상블 연주**
 - 일시 : 6.12(토) 15시30분
 - 장소 : 춘천문화예술회관
 - 무료초대권 배부처 : 후평2동 퇴계동주민센터, 옥림약기사
 - 문의 : 010-5356-2179
- **춘천독립영화 정기상영회**
 - 상영작 : '작은연못'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주민들의 실화)
 - 상영/장소 : 5.27(목) 밤7시 /강원대 사범대 4호관 118호
 - 입장료 : 일반 5천원, 청소년 3천원
 - 문의 : 244-8030
- **2010우두벌 단오한마당**
 - 일시 : 6월12일(토)13~17시
 - 참가 : 도내 장애인과 비장애인(600여명)
 - 내용 : 노래자랑, 팔씨름대회, 전통문화 체험, 윷놀이 등
 - 노래자랑신청 : 5월28일 마감
 - 문의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255-2491~3)
- **보건소 물리치료실 운영**
 - 일시 : 목요일(13~16시)
 - 대상 : 신체기능 장애자 30명
 - 내용 : 자세교정, 관절범위운동, 유연성운동 등
 - 문의 : 250-3578
- **라파엘(서울대 의료봉사단)이동클리닉**
 - 행사일시 : 6.6(일) 10~17시
 - 행사장소 : 춘천시보건소
 - 대상 : 시 거주 이주민 노동자, 결혼 이주민 여성과 그 가족
 - 진료과목 : 내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 문의 : 춘천시보건소(250-4552)
- **행복한 출산교실**
 - 기간 : 6.4~7.9(매주 금 15~17시)
 - 대상 : 임신부(주대상 20주이상 초산모) 40명
 - 내용 : 태교의 중요성, 라마즈 분만, 수유중 영양관리, 산전체조 등
 - 접수 : 5.10~ 선착순(전화접수가능)
 - 문의 : 시보건소(259-1813)
- **모유수유교실**
 - 기간 : 6.4~7.9(매주 금 13~14:40)
 - 대상 : 모유수유가 필요한 임신부 및 수유부
 - 접수 : 5월10일부터(전화접수 가능)
 - 문의 : 춘천시보건소(259-1813)

행정 · 기관

- **2010 계량기 정기검사**
 - 검사대상 : 상거래용저울, 이동식 측정기 ·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 눈새김탱크로리(유류거래용)
 - 검사일정 : 5.24~6.30
 - 검사일, 대상지역 문의 : 시청 경제과(☎250-3090)

- ※벌칙 :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거래용으로 사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축산농가 구제역 예방**
 - 소독철저 : 주2회 실시 (수,토요일)
 - 출입차량 및 방문자에 대한 소독 확인
 - 축산농가 여행 자제 및 모임 금지
 - 거품섞인 침흘림, 유두 · 발굽의 수포 등 이상 증세 발견시 즉시 신고
 - 신고전화 : 250-3790/3417
- **위기가구 발견시 전화주세요**
 -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저소득 주민
 - 발견시 연락처 : 250-4206, 4337, 3698번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 기간 : 5.1~6.30
 - 대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총 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그 밖의 무기류 일체 ▲소지허가 취소 후 경찰관서에 임시 보관하지 않은 총포 · 화약류
 -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소지허가 미갱신자,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기간 중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면제, 법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재발급
 - 신고요령 :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대리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 가능 <춘천경찰서 241-0112>
-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일정**
 - 교육시간/장소 : 14~17시/도체육회관
 - 교육월일 : ▲6.14(월) 동내면(거두택지) · 동면 · 소양로 · 근화동 · 석사동(스무썬 · 애막골) ▲6.15(화) 퇴계동(주공1,2차 · 금호 · 한주 아파트) · 사우동 · 신동 · 약사동 · 효자1동 · 중앙로 · 삼천동 · 사북면 · 서면 ▲6.16(수) 퇴계동 · 석사동 · 온의동 · 동내면 · 신동면 · 동산면 ▲6.17(목) 조양동 · 죽림동 · 낙원동 · 요선동 · 신북읍 · 북산면 · 교동 · 효자2 · 3동 ▲6.18(금) 옥천동 · 봉의동 · 새명동 · 후평동 · 윤교동 · 남면 · 남산면 ▲6.22(화) 지역별 불참자
 - 문의 : 춘천시보건소(259-1776)
- **201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결정 · 공시일 : 2010.5.31.
 - 이의신청기간 : 6.1~6.30
 -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문의 : 시청 민원지적과(250-3801, 3812)
- **춘천우체국 선거우편물**
 - 춘천우체국에서는 5월10일부터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서는 우편수취함에 배달되는 선거우편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우체국 259-6710>
- **춘천경찰서 원터치 SOS서비스 신청**
 - 서비스 신청자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본인 또는 보호자의 사전동의서)
 - 휴대폰 112단축번호 <1>번 활용, 피해자 위급시 <1>번 누르면 112신고센터에서 신상정보 즉시 확인 → 위치정보시스템 연계, 신속출동 현장검거 및 구조
 - 문의 :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253-5000)

6월 2일, 동시지방선거

투표한 사람만이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정책으로
경쟁하고
투표로 말하세요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신청

- 신청대상 :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춘천시내 거주
중증 신체장애인
- 신청기간 : 5.24~6.1
- 신청전화 :
 - 신북읍·사북면·북산면·서면·소양동·조운동
·약사명동·신사우동·근화동구역
(☎255-2491~3/ 이태훈, 탁승희)
 - 신동면·남산면·남면·강남동·퇴계동·석사동
·동면·동내면·동산면·후평1·2·3동·효자1·2·3동
(☎255-5886/정기봉, 박종란, 엄해용, 이은정)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전화
1588-3939

*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합니다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